



터 키

최근 정치불안 진정으로 금융시장 안정

지난 5월부터 불안 조짐이 나타나 7월 초 혼란이 극에 달했던 터키 정국은 7월 말로 접어들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5월 4일 77세의 에제비트(Bulent Ecevit) 총리가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정국 불안이 시작되었다. 각자 성격이 판이한 민주좌익당, 민족주의행동당, 조국당 등 3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연립정권은, 구심점인 에제비트 총리의 신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제1당인 에제비트 총리의 민주좌익당에 후계자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더하여 EU 가입조건을 둘러싸고 연립 3당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연립정권의 존속을 위협하는 정치 불안이 심화되었다.

그 후 정계개편 압력이 높아지고 경제불안이 확대됨에 따른 여론 악화, 재계와 군부의 압력, 민주좌익당 의원들의 이탈 등으로 인해 터키 정계는 2004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을 올해 11월 3일 실시키로 합의하였다. 총선이 거의 확정되고 민주좌익당을 이탈한 의원들이 신당을 결성하면서,

정국의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시장의 위기 감도 진정되고 있다.

정치 동향을 이해하기 위한 요소

다양한 이념의 정당들로 구성된 연립정권이 근래 계속되어온 터키 정치를 이해하는 데에는 다음 5가지 요소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첫째, 터키는 이슬람 국가이다. 주민등록에 종교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터키에서는 국민의 99%가 이슬람교 신자로 나타나는데, 이슬람주의는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 영향력이 있다. 이것이 근래의 총선에서 이슬람 계열 정당이 항상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이유이다. 현재 이슬람 계열 정당은 과거의 복지당(Welfare Party), 도덕당(Virtue Party) 순으로 이어져온 정의개발당이며, 5월의 여론조사로는 정의개발당이 18%의 지지를 얻고 있다. 반면 집권 3당의 지지율은 각각 6~7%에 머물렀다.

둘째, 國父로 일컬어지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Mustafa Kemal Ataturk)가 초대 대통령으로서 확립해 놓은 세속주의이다. 그는 터키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종교 즉 이슬람교가 정치와 사회를 지배해서는 안된다는 세속주의 이념을 헌법에 명시하였다. 세속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집권정당이라도 용서받지 못한다. 1999년 총선에서 111석을 확보하여 제1야당으로 부상하였던 도덕당이 2001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된 것도 소속 의원의 의회에서 이슬람주의를 주창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셋째, 강력한 군부이다. 과거 그리스와의 갈등, 옛 소련을 포위하는 남쪽 방파제로서의 역할, 이라크·시리아에 대한 견제 등을 이유로 군부는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개발도상국에서 그러하듯이 군부는 사회에 앞서나가는 엘리트 집단으로 기능을 발휘해왔다. 이는 안전보장과 외교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에 대통령, 수상, 다른 각료 3명에 3군 사령관과 보안사령관이 구성원으로 참석하는 것에서 잘 나타난다.

또한 군부는 과거 1960년, 1971년 및 1980년의 쿠데타로 당시의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였고, 이슬람주의 정당인 복지당이 1996년에 중도우익인 정도당과 연립하여 집권하였을 때는 세속주의를 수호하는 세력으로서 정계에 압력을 가하여 1997년에 정권을 붕괴시킨 바 있다.

넷째, 인구의 1/5을 차지하는 쿠르드계의 분리 독립운동과 이를 분쇄하려는 민족

주의 성향이다. 터키의 동남부 지역과 이라크 북부에 걸쳐 있는 쿠르드계 주민들의 독립운동은 터키와 이라크 양쪽 모두의 탄압을 받아왔다. 서유럽 국가들은 양국이 이 과정에서 쿠르드계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한다는 비난을 해왔으며, 터키가 EU 가입을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사이프러스 문제와 함께 이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EU는 터키가 EU에 가입하려면 주로 쿠르드계 분리주의 테러리스트들에 대해 적용되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쿠르드어 교육과 방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가입조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측이 현 연립정권의 한 축인 민족주의행동당인데, 의석 129석인 이 당은 에제비트 수상의 민주좌익당이 분열되어 의석이 136석에서 64석으로 줄어들면서 원내 제1당이 되었다.

이 쿠르드 문제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해 군부가 우려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으로 쿠르드계 주민에 대한 이라크의 통제력이 떨어지면 터키와 이라크에 사는 쿠르드계 주민이 히오 하차여 분리독립 운동을 일으킬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다섯째, 유럽에의 귀속 열망이다. 유럽은 터키의 주요 교역 상대로, EU는 터키 수출의 53% 및 수입의 49%를 차지한다(2000년 기준). 더욱이 EU 가입에는 여러 제도들의 개혁이 뒤따라야 하므로 개혁주의자들로서는 EU 가입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터키의 제도를 개혁하고 터키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1999년에 터키가 EU 가입

<표 1>

터키 정당의 이념 계열

이념 계열	정 당
사회민주주의	민주좌익당(DSP), 신터키당, 공화인민당(CHP)
중도 우익	조국당(Anap), 정도당(DYP)
우익 민족주의	민족주의행동당(MHP)
이슬람주의	정의개발당(AKP)
쿠르트 계열	인민민주당(HADEP)

허사 레사구오르 지지된 이후 터키 정부와 여야를 막론한 정당들이 예외 없이 EU 가입을 지지하고 있다. 군부조차도 EU가 원하는 군부의 영향력 축소에 부분적으로 양보하는 입장이어서, 쿠르트 주민이 대다수인 4개 지역에 내려져 있던 계엄령을 올해 2개 지역에서 해제하였다.

최근 정계 변동은 일단 마무리된 듯

에제비트 총리의 병고로 인한 집무 중단과 이를 이용한 야당들의 총리 사임 및 조기 총선 요구, 집권여당 3당간의 갈등 등이 터키 정국을 불안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고, 마침내 민주좌익당의 제2인자였던 외즈칸 부총리가 탈당하면서 세력을 규합하여 의원수 61명의 신터키당이 새로 결성되었다. 이스마일 켈메시 전외무장관이 당수직을 맡게 되었으며, 데르비슈 경제장관이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7월 18일 에제비트 총리는 총선을 11월 3일에 실시하기로 집권 3당이 합의하였다. 반표차여다 이미 미조주이해 동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청에 따라 의회가 9월 1일 소집되기 큰 공포되어오나 서거 사무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전에 소집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히이 이케드 하이에 이르 사태로서 우선 총선일자를 확정짓고 나서 EU 가입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 법률의 개정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경제는 일단 안정을 찾아

정계의 이 같은 혼란에 금융시장도 크게 동요했다. 그러나 총선일 확정 등 정치일정이 구체화되고, 사회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국민정당을 표방하는 외즈칸-켈메시-데르비슈 신당의 결성이 EU 가입과 경제개혁 정책의 중단 없는 수행에 희망을 주고 있어 시장도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 실사단도 7월 중순 이스탄불을 방문하여 프로그램 이행 상황을 점검한 후 만족을 표시함으로써, 11억 달러의 대기성 차관 3차 집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에제비트 총리의 입원 후에 일어난 정치불안 확대를 전후하여 주요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1/4분기의 GDP 성장은 2.3%에 이르렀고 상반기의 재정수지도 이자지급을 뺀 일반회계는 작년과 같이 흑자를 유지하여 7,544조 리라의 흑자를 유지하였다. 또한 외화보유액도 약 220억 달러로서 수입 6개월분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불안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중요한 불안요소는 외부적인 것으로서, 특히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침공 가능성이다.

〈표 2〉 에제비트 총리 입원 후의 환율과 주가 변동

일 자	리라/달러 환율	주가지수(ISE100)
4/28	1,338,308	11,441
7/3	1,642,267	9,008
7/4	1,626,000	9,060
7/8	1,662,368	8,912
7/12	1,667,000	9,499
7/15	1,682,549	9,397
7/18	1,647,466	10,552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한 우려

터키는 NATO의 유일한 이슬람권 회원국이자,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對중동 정책, 특히 이라크에의 공격 계획에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IMF가 2002년 2월 터키에 163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기로 결정한 것도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하겠다.

미 국무부의 폴 월포위츠 부장관은 7월 18일 3일간의 방문을 마치고 터키를 떠나면서 이라크에 대한 공격이 터키에 손실을 끼칠 것이라는 터키측의 우려에 대해, 미국은 터키에 안보차관 280억 달러를 제공할 의사가 있으며, 터키가 對이라크 공격

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는다면 후세인 정권의 붕괴 후 전개될 이라크 정비에 터키의 발언권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였다.

터키는 미국의 對이라크 공격에 대해 쿠르드족 문제뿐만 아니라 전쟁이 외국 관광객의 급감을 가져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이루어진다면 어쩔 수 없이 협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체념의 분위기도 있으며, 이 경우 관광시즌이 끝나는 연말 이후에 공격이 실시되기를 바라고 있다.

【康 峻 秀】